



타이어 관리요령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승용차 등록대수는 10,015,790대로 자동차 등록 현황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천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국민 48명당 승용차 1대를 보유한 셈으로 한 가구당 승용차 1대 이상 보유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는 자동차는 제 기능 유지를 위해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다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제 성능을 다 하지 못하기 마련으로 특히, 타이어가 나쁘면 차량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 이에 타이어 관리요령을 비롯하여 펑크났을 때의 자가조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타이어 점검

타이어 공기압은 한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으면 지면과의 마찰이 많아져 기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마모가 빨라진다. 또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릴 경우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타이어 접지부의 바로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이 접히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타이어 내부에 생긴 고열로 변형이 커져 타이어가 파열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공기압이 높으면 승차감을 떨어뜨려 운전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고 가벼운 충격에도 파열되기 쉽다.

타이어는 2km 이상 주행하면 공기압이 증가하게 되므로 평상시에는 최대 공기압의 9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거리 고속주행의 경우 타이어 내부에 축적된

열을 식히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공기압이 적으면 타이어의 양쪽 옆부분이 마모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반대로 공기압이 과도한 경우에는 타이어 중앙 부분의 마모가 커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타이어 관리

차량의 구동축에 장착된 타이어는 다른 쪽보다 마모도가 심하다. 따라서 보통 1만km 정도를 달린 뒤 앞뒤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게 좋다. 한번 위치를 바꿨다면 다음 교환 시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교환해준다.

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타이어 편마모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차량 떨림의 원인이 되며 차량 서스펜션의 불필요한 마모 등을 유발한다. 휠 밸런스는 1년마다 점검하고, 급출발이나 급제동은 타이어 수명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하여 스페어 타이어를 항상 준비하도록 하자.

■ 타이어 교체시기

보통 타이어는 6만km 주행 후에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모된 타이어를 계속 사용하면 주행 중 펑크가 나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사고를 유발하는 수막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약간의 충격에도 펑크가 잘 나므로 미리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는 트레드(굴곡)가 밟밋해지면 교체해야 한다. 전륜구동형은 앞바퀴 두개만, 후륜구동형은 뒷바퀴 두개만 먼저 교환해도 되고 타이어에 못이나 돌 등이 박혀있는 경우에는 조그만 것들은 빼내고 상처가

크면 전문점에 보인 뒤에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무조건 중고타이어를 구입하려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중고타이어의 값은 새 타이어의 절반 이하로 싸지만 안전도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차를 새로 구입해 광폭타이어로 바꾸기 위해 빼놓은 타이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로 폐차하면서 나온 타이어라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봐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굳이 중고타이어 구입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타이어의 옆면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이 부분은 타이어에서 가장 약해 손상된 경우 장시간 고속주행시 열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팎을 모두 살펴 손상부위가 없는지, 매우거나 깨멘 뒤 색을 칠한 자국이 없는지 잘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 타이어 구별법

타이어는 승용차와 RV용의 표시가 약간 다르다. 승용차 타이어에 P185/60R14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P는 승용차(Passenger Car)를, 185는 타이어가 땅과 맞닿는 부분, 즉 타이어의 단면폭(mm)을 뜻한다. 60은 타이어 단면폭에 대한 높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변평비)으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 60~70이며 스포츠카는 50, 55 정도이다. R(라디알)은 타이어 구조를 뜻하며 간혹 R이란 문자 앞에 S(180km이하), H(210km이하), V(240km이하), Z(240km이상)를 붙이기도 하여 타이어의 한계속도를 표시한다. 14는 림(휠)직경이 14인치임을 나타내며 국산차 중 소형은 12~13인치, 대형은 15인치가 보통이다. RV용의 경우 31×10.50R 15로 표기하는데 31은 타이어 전체의 높이(mm)를 10.50은 단면폭(mm)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승용차와 같다.

광폭 타이어는 직진 주행이나 코너링 때 안정감이 있지만 빗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지기 쉽고 연료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 타이어 펑크 났을 때의 조치법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면 매우 위험하다. 타이어가 터지면 핸들을 힘껏 쥐고 시야가 트인 직선도로나 평탄한 곳 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에 정차한 후 고장 표시판을 설치한다.

엔진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교환할 타이어의 대각선 위치에 있는 타이어에 고임목을 받친다. 차를 들어올리기 전에 휠 너트렌치를 휠너트에 정확히 물린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휠너트를 약간 풀어 놓는데 이 때 휠너트를 완전히 풀지 않고 잭을 펑크난 타이어쪽에 연결하여 타이어가 지면에서 약간 뜰 때까지 올린다.

지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차량을 올리다가 잭이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나 편평한 도로 잭의 하부를 잘 지탱시키고 휠너트를 완전히 풀어 타이어를 제거한다.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한 후에는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휠너트를 조금씩 조인다. 잭을 내리고 휠너트를 대각선 순서로 2~3회에 걸쳐 완전히 조인 후 펑크난 타이어는 조속히 수리하고 휠 밸런스를 점검한다. 

